

배포 일시	2022. 11. 3.(목)		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	책임자	과 장 안세희 (044-201-3526)
	해외건설지원과	담당자	사무관 간인숙 (044-201-3529)
보도일시	2022년 11월 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3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원팀 코리아, '제2중동붐' 실현 네옴 있는 사우디로 함께 뛰다

- 정부기관 최초 네옴 현장 방문... 사우디 정부와 공동 혁신 로드쇼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(근무일 기준) 사우디아라비아에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네옴시티\* 등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.

\* 사우디 북서부 Tabuk주 약 26.5천km<sup>2</sup> 부지에 사우디~이집트~요르단에 걸친 미래형 산업·주거·관광특구(30년까지 총 4~5단계 순차 발주, 5천억불 규모)

○ 이번 방문은 고유가에 따른 중동지역 인프라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,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『원팀 코리아』를 구성하고 네옴 등 메가 프로젝트 발주가 진행되는 사우디아라비아\*를 집중 공략하여 제2의 중동붐을 견인하기 위해 기획되었다.

\*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위(1,557억불) / '22.1분기 GDP 9.6% 상승

○ 특히, 우리 정부기관 최초로 네옴 현장을 방문하여 정부의 협력의지를 전달하는 사례로, 사우디 교통물류부(Ministry of Transport and Logistic Services)와 공동으로 『한-사우디 혁신 로드쇼』를 개최(11.6, 현지시간 10시)하여 우리기업을 홍보하고 사우디 진출기회를 넓혀갈 계획이다.

□ 원 장관의 취임 후 첫 출격하는 원팀 코리아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건설, 모빌리티, 스마트시티, IT, 스마트팜 등 다양한 업계와 함께, 건설 산업을 문화와 기술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구성되었다.

\* 원팀코리아 구성(안) : (정부) 국토교통부, (공공기관)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(단체) 해외건설협회, (관련기업) 건설 11개사(현대건설 삼성물산, 한미글로벌, 코오롱글로벌 등), 모빌리티 2개사(모라이, 토르드라이브), 스마트시티 3개사(참깨 연구소, 엔젤스윙, 포테닛), IT 4개사(KT, 네이버 등), 스마트팜 2개사(포미트, 엔쌈)

□ 우리나라는 1962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수교한 이래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, 특히 올해는 양국 수교 60주년(10.16)으로 교류의 폭과 깊이를 더해 나가고 있다.

○ 건설인프라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은 상징성이 매우 크다. 사우디아라비아는 1973년 우리 건설근로자가 중동지역 최초로 진출한 국가로써, 우리기업들이 가장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해외누적 수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점 협력국이다.

\* 1위 사우디(1,551억불), 2위 UAE(832억불), 3위 쿠웨이트(489억불) 순

○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업다각화를 위한 국가전략인 ‘비전 2030\*’ 을 수립하고 비석유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네옴시티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, 2060 탄소중립을 목표로 교통,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.

○ 현재 우리나라는 사우디 ‘비전2030’ 중점협력국으로써 에너지, 건설 인프라를 비롯한 IT,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.

\* 탈석유, 산업 다각화를 통한 경제성장 추진을 위한 국가 청사진(‘16.4 발표)

\*\*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, 미국, 일본, 중국, 인도, 독일, 프랑스, 영국을 중점 협력국가로 선정(‘17.3)

□ 원 장관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사우디 주요 정부 인사와 네옴과 같은 핵심 발주처CEO를 만나 협력을 구체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- 에너지부 장관, 국부펀드 총재, 투자부 장관, 관광부 장관, 주택부장관 등 우리기업 활동에 관련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건설인프라, 모빌리티,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제안한다.
  - 특히, 교통물류부 장관과는 교통 모빌리티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미래 모빌리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여 양국 간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다.
  - 알 아카리아(AL AKARIA), 로신(ROSHN), 홍해(REDD SEA) 개발회사, 키디야(QIDDIYA) 개발회사 등 도시 및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는 사우디 국부펀드 자회사 CEO들과 우리기업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우리 기업들의 사우디 내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.
  - 이외에도, 우리 기업이 수행중인 건설현장 방문하여 우리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한편,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볼 계획이다.
- 한편, 원 장관은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공동으로 『한-사우디 혁신 로드쇼』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적극 홍보하고, 양국 기업 간 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.
- \* (日時所) '22.11.6(일) 오전 10시(현지시간) / 리야드 크라운 플라자 RDC 호텔  
 (우리측 참석) 국토교통부,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
 민간기업(22개사) : 건설 11개사(삼성물산, 코오롱글로벌 등) 모빌리티 2개사(모라이, 토르 드라이브), 스마트시티 3개사(참깨연구소, 엔젤스윙, 포테닛), IT 4개사(KT, 네이버, 네이버랩스 등), 스마트팜 2개사(포미트, 엔씽)  
 (사우디측 참석) 교통물류부 및 주요 발주처 인사 등
- 동 로드쇼에 사우디 교통물류부 등 주요 정부 및 발주처 인사를 초청하여 원팀코리아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소개할 예정이다. 개막행사 후에는 건설, 모빌리티, 스마트시티, IT, 스마트팜 등 분야별 우리 기업의 기술 발표를 진행하고, 우리 기업과 사우디 정부 및 발주처 인사와의 1:1 상담회를 추진한다.

-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정부 최초로 네움시티를 방문하여 네움 CEO와 면담을 통해 네움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의 협력의지를 적극 표명할 계획이다.
- 현재 우리 기업들은 네움의 첫 프로젝트인 ‘더 라인(The Line)’의 터널사업, PMO(Project Management Office)로 참여중인 바, 원 장관은 더 라인(The Line)의 터널사업 및 상부구조물, 옥사곤 항만 등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협조 및 향후 발주사업 정보 공유를 요청할 계획이다.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이번 방문은 그간의 건설인프라 분야에서의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”이라고 강조하면서,
  - “스마트시티,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는 우리기업들의 우수한 기술이 네움, 키디야, 홍해 등 주요 프로젝트에 활용되어 제2중동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